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0년 8월 2일 ( 제1060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얼마 전, 어느 장로님이 신축한 건물 한개 층을 교육관으로 내놓았다. 이는 그 장로님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서울 담임목사와 행정목사, 대학 · 중고등부 교역자와 시무장로, 그리고 현장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내가 급히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빨리 드릴수록 좋다는 것을 교역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난 일이 떠올랐다. 교단에서 제명을 당하고, 가족마저 떠나는 아픈 시기를 겪을 때였다. 그럼에도 나는 주중에는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했었다. 그날도 집회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내 식사를 담당해주는 김영복 권사(당시 집사)가 전도사와 함께 나를 마중 나왔다. 김영복 권사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지하를 기도처로 내놓았다며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데, 김영복 권사 아들인 당시 초등학생이던 재식이가 "엄마,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그러면 전 세계 목사들이 모일 텐데, 하나님이 '목사 대표 예루살렘교회 이초석' 그러시겠지?"라고 했다. 그 말에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하나님이 어린 것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다.

재식이는 잘 자라 명문대를 거쳐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어느 날 그의 어미가 "네 자식을 바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후 재식이는 주의 종 길을 갔다. 그가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혁주 전도사다. 내가 '혁주(赫主)로 이름을 바꿔주었다. 나는 신 전도사에게 "네가 이렇게 좋은 교육관을 갖게 된 것은 그때 네 어미가 기도처를 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셨다가 환경적으로 100배나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 거란다."라고 말해줬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당대에 거두게도 하시지만, 신혁주 전도사처럼 후대가 거두게도 하신다. 당신은 무엇을 심었는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 내 삶의 천국열쇠

목사님께서는 지난 수요예배를 통하여 36년의 성공적인 사역을 가능케 한 천국열쇠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진솔하게 간증해주셨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어서 하늘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열쇠를 주었다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목회 36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것은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세월에 따라 변질되곤 하지만 예수님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된 그분의 말씀은 지난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무엇 하나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마16:19),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축복하라, 너에게 맡긴다'(요21:17), '네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20:23),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요14:12)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까지 달려와서 예수중심교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열쇠의 비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젖힌 엘리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공통점은 애통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밤이 맞도록, 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 말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예수 그리스도, 바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습관 중의 하나가 기도였던 것처럼, 그래서 나 역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노인, 여자,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대략 200만이 넘었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우성을 치며 모세만 쳐다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군대요,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을 때도, 마실 물이 없다 아우성칠 때도,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쓸 때도 모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 또한 36년을 돌아보면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지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 어머니도, 내 형제, 내 자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무수한 핍박과 환란을 당할 때도, 예배할 처소가 없어 막막할 때도, 해외집회에 나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분 앞에 엎드려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천국열쇠, 곧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사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이 크고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세계에 나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천국열쇠의 비밀, 이는 믿는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반드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비를 멈추고 햇빛으로 역사해주신 메인스타디움집회, 오직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은 결과다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2:1~11)

# 쓰지 못하는 악한 병을 제거하라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전10:10).

자동차도, 기계도, 육체도, 머리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쓰지 않으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습니다(고전12:8~10). 왜 주셨을까요? 이 은사를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행1:8). 이 은사를 무기 삼아, 이것을 연장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36년 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집회할 때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한 천국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 성령', '같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고전12:4).

## 자주 쓰는 열쇠는 녹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전 우리 교인들은 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굳이 아프다고 목사님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체 해결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좀 교양 있게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사가 녹슬었습니다. 우물도 퍼내야 마르지 않고, 작은 옹달샘도 계속 흐르기에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또 남을 가르쳐야 나의 지식이 넓어지는 법이지요. 매일 귀신을 쫓는 자가 잘 쫓습니다. 매일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병이 잘 낫습니다. 은사는 써야 더 큰 은사가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더 큰 은사'는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고전12:11). 다양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됩니다. 물질이 많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봉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면 됩니다. 그런데 좀 아깝지요? 내가 죽어라 애써서 번 건데 아깝지요?

성경에는 두 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로,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심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막10:21)고 했는데도 그는 아까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막10:24~25)고 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에게 인색하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 그것을 어디에 다 쌓을까 고민하다가 새 곳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9:27)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꼭 해야 할 일은 이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세로의 이사준비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0~21).

물질이 많습니까? 주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합니다. 어느 과부는 전 재산인 두렙돈도 드렸건만,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내어놓았건만, 풍성한 것 중의 일부를 쓰지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세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쓸 줄 아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주의 일하라고 사정하지 않는 이유는 '행한 대로'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건강합니까? 육체로 봉사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습니까?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까? 유치부 교사로 일하면 되고요, 목소리 하나는 탁월합니까? 성가대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기도원에 트랙터를 사주고, 굴착기를 사주는 것은 일을 더 잘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심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입니다. 그러나 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고전12:29~30)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쓰면 됩니다.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내 지식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 됩니다. 아깝게 여기지 말고, 억지로도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찮지요? 아깝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숭이가 호리병 속의 망고를 놓지 못해서 사냥꾼에게 잡히듯, 내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 인해 귀신의 밥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 총구가 녹슬면 총알이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겔33:4).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상청에서 장마를 예고하듯,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듯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 나팔을 지속적으로 불어야 합니다. 염병이 돌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는 등 어수선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마지막 때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씁시다.

인색한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악이요(전6:1~2),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더욱 큰 악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면 '악한 자'가 됩니다. 그런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써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시다. 은사와 달란트는 쓰면 닳는 게 아니라 쓸수록 빛을 발하고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장이며, 하나님의 결심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이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놓아서 희생하시기까지 예수 믿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었다. 생선을 냄비 안에 넣고 끓이면 생선 속에 있는 알도 함께 죽는 것같이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 안에 있던 인류도 함께 죽었다. 아담의 죄가 유전된 인류는 누구도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진멸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세상까지 추적해오셨다. 우리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중대하고 무서운가를 알아야 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 된 인간들은 비로소 죄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죄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무런 의무가 없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폭력자로 여기기 쉽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라고 하는 형벌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기 쉽다. '십일조 안 하면 저주받고, 주일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치신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시키기 위함이니, 즉 십일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인간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저주를 면하라는 것이다. 즉 불순종하므로 저주받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순종하여 저주를 받지 않게 하려고 보내주신 말씀인 것이다.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니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랴(마7:11).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마귀의 일은 교만과 불순종이다. 저주받게 된 자가 저주를 면하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으니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해야할 요소들을 자꾸 제공하신다.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은 견고하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신다.

신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신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거나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들을 믿는다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아름다운 인생 ::

# 불을 밝혀라

야간에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일명 '스텔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식별할 수 없어 추돌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스텔스 차량의 대표적인 원인은 자동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조등이 켜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저도 실수로 전조등이 아닌 미등만 켜놓고 운전할 때도 있었고, 전조등이 나간 줄 모르고 운전하다가 남이 알려줘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등을 켜지 않던, 켰다고 착각을 하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소한 것 하나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세상의 빛이 된 줄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빛을 상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점검부재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동차의 라이트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점검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불이 밝지 않으면 발을 헛디뎌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지 몰랐던 다섯 처녀꼴이 날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충만을 잃지 않으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점검이 필수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마5:15).

이은성

:: 신앙논객 ::

# 명경지수(明鏡止水)

일본 궁도(弓道)의 명인으로 전해지는 아와 겐조(阿波研造)는 제자들에게 활쏘기 기술이나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시간을 거의 할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활쏘기에 관해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는 그저 "잘 익은 과일이 가지에서 떨어지듯 활이 네 손에서 떨어질 때까지 시위를 당기라."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겐조는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능력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그는 제자들이 활을 과녁에 명중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결과에 관한 생각조차도 버리기를 바랐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궁수가 활을 자연스럽게 쏘길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만의 전략이나 인위적이고 계산적인 요령에 의존한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요령은 화살을 어디로도 이끌지 못한다."

이 책은 마침 여러 문제와 결정할 사항들에 둘러싸여 복잡하게 생각이 얽힌 나에게 뭔가 확 와 닿았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너의 경험, 인간적인 의지와 결과에 대한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아라.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너의 모든 행사를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너를 이끌 것이다."

'명경지수(明鏡止水)', 맑은 거울과 잔잔한 수면처럼 고요한 마음 상태를 뜻한다. 중국 춘추시대에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대가인 공자의 제자들만큼이나 많았다. 이를 보고 공자 제자인 상계는 불만 섞인 투로 물었다. "스승님, 많은 사람이 왕태를 따르는 까닭은 무엇이옵니까?" 그러자 공자 왈, "그것은 그의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흐르는 물처럼 흔들리는 수면으로 거울을 삼는 일이 없고, 그쳐 있는 물로 거울을 삼는데, 왕태의 마음은 그쳐 있는 물처럼 고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거울삼아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명사수가 되려면 잡다한 생각을 비워야 하듯, 명경지수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잡다한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풍랑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때 비로소 그분이 일하신다. "…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시46:10).

신혁주 전도사

:: 소망의 언덕 ::

# 길은 있다

코로나 초기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감동 프로젝트'를 실행했었다. 바로 모든 교사들이 토요일이 되면 담당 지역을 나눠 중고등부 전체 학생을 1:1로 심방 가는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시간까지 서울과 경기 전역을 돌아다니니 피곤할 법도 했지만 심방을 가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쳤다.

다시 종교단체의 소규모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다. 목사님은 국가의 지침에 절대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바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보통 교사 새벽기도는 5시이고, 임원 학생들은 6시였다. 그러나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기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2주간 온라인 작정 새벽기도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월요일 첫 온라인 새벽기도를 진행했다. 채팅창을 통해 기도회에 참석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일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반갑게 맞이했다. 각자의 침소에서 기도하고자 일어나는 학생들로 인해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고 감격스러웠다. 갑작스런 시작이었기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헌신된 교사들로 인해 차차 시스템도 안정되어 갔다. 처음엔 졸기도 하고 어색했지만 점차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피드백도 있었다. 그렇게 2주간의 온라인 기도회가 끝나갈 무렵 교회의 소규모 모임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되었다.

돌이켜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때마다 몸부림을 쳤던 것 같다. 물론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도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것 뒤에 숨어 안일해지거나 그로 인해 침륜에 빠지지 않았다. 이는 온전히 총회장 목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본이었고 가르침 때문이었다. 해외집회 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 집회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길은 있다. 없으면 만들면서 가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된다.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 에덴으로 귀환 ::

# 통 큰 자가 됩시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영수업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경영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사업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방법,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을 분별할 줄도 알게 되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사업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되레 오해와 질타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단 한 번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끓어오르는 젊은 피를 가진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도 못 자겠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천불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부모님은 "내가 잘못을 했으면 두 발 뻗고 못 자겠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잠이 오지 않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신원해주시는데." 이리 말씀하십니다. 저라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를 막 퍼트리고 다녔을 텐데, 그런 뒷얘길랑 남에게 옮기지도 않으시고, 행여나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까 쉬쉬하며 조용히 숨겨주십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래처와의 금전 관계에서 손해를 본 것만 해도 3~4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분통이 터져 소송이라도 걸어서 가만두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불일 듯 들었지만, 부모님께서는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소송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소송을 거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오히려 삶이 피폐해진다고 말입니다. 손해 본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하셨고, 차라리 하나라도 더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그만둘 때에도 원칙대로 하면 그동안 베풀었던 물질적 도움이나 배려를 수치화하여 금전적으로 적용해 회사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함이 틀림없는데, 부모님은 그런 작은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더 많이 주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제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남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고 큰마음을 품으면 제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서 말이죠.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인배가 되라, 통 큰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작은 그릇들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라고 알려주셨지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후에 이집트의 총리라는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도 그들을 다 품어준 큰 그릇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영웅이자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사울은 이를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세 번이나 살려준 통 큰 자였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세상으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으며 돌을 맞아도, 목사님께 은혜를 입은 많은 자들이 침을 뱉고 배신하여도 허허 웃으시며 그들을 일흔 번에 일곱 번이 넘도록 용서하시는 통 큰 자시지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인간을 위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원통하고 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하셨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 하셨으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통 큰 자가 됩시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넓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그릇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담을 수 있게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김은유 집사**

:: 신앙에세이 ::

# 그러려니

스트레스는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온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으로부터 온다. 이해할 수 없는 서로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고, 특히 가족, 직장,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 가까운 사람 사이에 발생한다.

그 갈등을 대화로 풀 수 있다면 참 다행이다. 하지만 끈끈한 정으로 뭉친 가족이 아닌 이상 대부분 대화로 풀기보다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남거나 속으로 삭히게 된다. 상대방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 차라리 안 보고 살기 위해 그곳을 떠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쿨한 성격이면 좋으련만, 마음이 태평양 같으면 좋으련만, 나 또한 마음에 잘 담아두는 성격이라 그럴 때마다 참 힘들다.

사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변하지 않는다. 성령의 힘으로도 성격이 변한다기보다 방향이 바뀌는 것 같다. 장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그래서 단순히 나의 지적과 잔소리로 이해가 안 되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아집이 되고, 관계마저 불편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말한다. '그러려니 해보라'고.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해보니 신기하게도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 사람의 자리가 저러니, 상황이 그러니, 성격이 그러니, 그러려니….' 이게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건가 싶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아, 하나님께서도 날 보고 그러려니 하시면 안 되는데….' 혹여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쟤는 원래 그러니, 꼭 저러니, 도통 깨닫지를 못하니 그러려니' 하실까 잠시 내 평소 언행을 돌이켜 본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지언정 스트레스는 드리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계22:11).

**박찬영**

post.naver.com/imsofriendly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한참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 괌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와 서로의 안부를 나누다 어쩌면 이 시기가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는 얘기와 함께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의 주권'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문득 '선택'에는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다는 생각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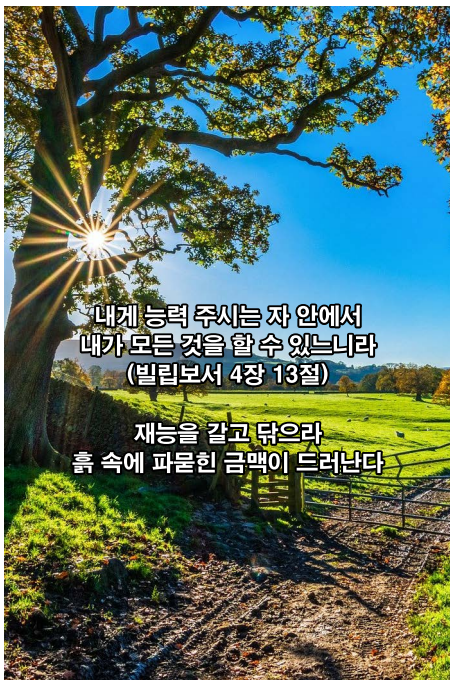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싫다는 짓만 골라 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버림받은 왕 '사울'이 되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사 그의 아들 여덟 명을 만나게 하셨다. 다윗은 그 중의 막내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과 삼마는 물론 키 크고 건장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통솔력이 뛰어나 누가 봐도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큰아들 엘리압 마저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선택받지 못한 다윗의 형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왕으로 선택받기를 기대했을 것인데 선택받지 못해 크게 실망했을까? 아님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나를 선택해주지 않은 하나님이 밉고 화가 났을까? 성경을 묵상해보니 다윗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는 달리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도왔고 왕이 된 이후에도 훌륭한 장군이 되어 다윗의 곁을 지켜줬다.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걷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기도 하지만 선택받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음은 선택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출생된 것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것도, 학교도, 직장도 모두가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다. 분명,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바로 그날 밤, 어쩜 다윗의 형들은 비록 자신들이 왕으로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왕의 형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로 멋진 왕의 형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싶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망과 부끄러움,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상처가 되어 삶이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또 다른 역할에 선택받은 은혜와 감사로 삶이 채워지기도 한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으셨지만 그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각자 주어진 그릇이 다르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여덟 명의 자녀 중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그 해답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한다. 아름다운 다윗의 시 안에는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후회하시곤 버리셨다. 하나님은 오로지 감사와 함께 순종하길 우리에게 바라신다.

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가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Dr. 권정미**